

現場에서

춘천계우회를 찾아



△ 김준형 수석연구원



▷ 강원도 춘천시 춘천계우회 회원농장

모든 산업에 있어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는 일은 경제적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양계산업도 하나의 경제적인 활동이고 보면 생산비 절감이라는 문제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특히 요즈음 같이 만성적인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양계업 산업중 육계업에서 생산비 절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육계 사양가들이 한데 모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사업의 발전을 구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본지는 지난 7월 14일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육계사육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정확한 기장을 통해 서로의 생산원가를 비교하며 계산적인 육계산업을 시도하고 있는 춘천계우회

를 찾았다.

철저한 기장을 통한 양계

79년초에 창립, 작은힘들을 모아 큰힘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에 출발한 춘천계우회는 현재 김준수회장과 김준형총무, 황인성, 신상철, 이춘연, 최신근, 김종대, 성범용 등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들은 모두 각 농장에서 기장을 철저히 실시하여 매주 개최되는 계우회에서 서로의 원가계산서를 복사하여 원가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계산하고 많이 지출이 된 경우 회원들의 중점 토의를 통해 사육관리, 질병문제, 사료문제 등 각 통별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 대책까지도 논의하게 된다. 회원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농장의 좋은 점을 함께 채택하고 문제점은 시정해 나간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당시 전체 회원농장의 평균 사료효율 2.6~2.7을 현재 2.2~2.3까지 내릴 수 있었으며 어느 농장이 2.07까지도 나왔단다.

또 계우회에서는 약품, 사, 보온덮개 뿐 아니라 병아리까지도 공동구입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고 방역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사료는 각기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여 지역특성과 병아리에 게 가장 효율 높은 사료를 성계출하시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여 계우회 모임에서 장·단점을 토론한 후 가장 적합한 사료를 선별한다.

또 계우회에서는 지역축협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물

량체화시에는 자체 조합에서 수매비축을 실시하며 군납 등을 통해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조건에 판매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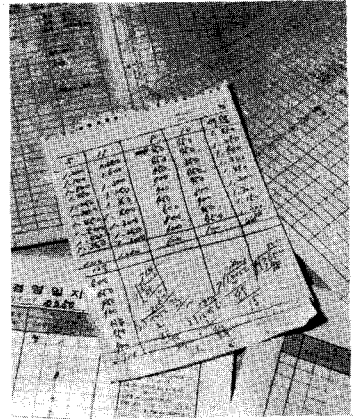
돈은 자기 땀으로 착실히 벌어야

「돈은 자기 땀으로 착실히 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김준수회장은 77년 1천수 육계사육으로 출발해 지금 춘천시 퇴계동 431번지 5,000평 대지위에 2만수 규모로 육계업을 경영하고 있다.

기자는 더욱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김회장의 농장을 방문하여 사육하는 방법등을 들어보았다.

김회장은 가격 20~30원을 더받기위해 농장을 도외시키고 닭장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축가는 착실히 농장에서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시키는 길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그의 소신을 밝히며 정책적으로 생산자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생산자는 이윤이 적더라도 판매 가격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는 안심하고 사육함으로써 더욱 생산원가를 절감해 소비자에게는 싼 축산물을 공급하는 안정된 육계산업이 하루속히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다.

특이한 것은 김회장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신의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강원대학교생 2명을 학비 급속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취업시켜 그들로 하여금 기장업무와 인사관리를 전담



△ 난로 위에 함석을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
(오른쪽은 각 농장의 기장 장부)

케 한다.

대학생들 외에 각 계사에는 4명의 고용인을 두어 각기 5~6천수의 닭을 관리하게 하는데 상호 경쟁을 통해 출하시 성적을 잘 내게 되면 특별 휴가와 보너스를 제공하며 관리업무는 대학생들이 담당하며 체중측정, 소독, 기장을 하게된다. 항상 선의의 경쟁속에 기록하며 연구하는 농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는 「비단 김회장 뿐 아니라 전 회원들의 농장에서도 다른방법으로 또 부지런히 기록하고 서로 잘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초대계우회장을 지낸 바 있는 현 춘천축협 황인성 조합장은 회원의 자격으로 춘천계우회의 노력하는 모습을 피력한다.

사례발표를 통해 비교하는 양계

사료효율보다는 닭 1kg 생산

하는데 소요된 생산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계우회는 회원 농장 방문 또는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회합을 통해 출하가격 정보의 신속한 전달, 주간의 사육관리, 질병방역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 교환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회합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를 위해 회원들의 좋은점 등의 사례발표를 하고 좋은점을 함께 채택하는데 김준수회장은 함석육추를 개발 보급한 바 있다. 이는 봄, 가을, 겨울 동안 육추사내 온도와 습도조절을 위해 설치한 난로 위에 물이 든 깡통을 설치하여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위에 함석(3자×6자)을 천정에 매달아 놓으므로써 함석의 반사를 통해 습도는 물론 온도의 전달이 넓은 육추사 내에 고루 전달되게 되어 밀사를 방지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육추를 가능케 한다.

또 춘천시 신동에서 육계 2

만 5천 수를 사육하는 신상철 회원은 평사사육외에 초생추부터 25일 동안 케이지 사육을 하다가 평사로 내리는가 하면 출하 시까지 전 기간 동안을 케이지 사육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위 면적 당 많은 수의 사육과 관리가 수월함은 물론 출하일령을 단축시키고, 상품의 균일화를 유도한다.

회원 상호간에는 좀 더 나은 사육을 위해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는데 다른 회원의 양계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복사해 자신의 양계장 관

리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례연구를 하게끔 하여 결국에는 문제점을 파헤쳐 좋은 성과를 내야 마는 예도 있었다고 한다.

구성원의 단합과 리더의 헌신적 노력이 성공 요인인 계우회

한 단체의 발전은 그 단체원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나 그 회합의 리더가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개개인의 이익에 앞서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 그 단체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는 김준수회장의 리더십이 춘천계우-

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원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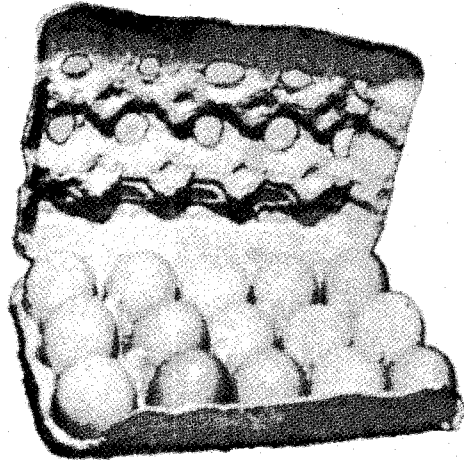
이 사회가 경제사회이고 경쟁사회이고 보면 이 경쟁에 적응키 위해서는 약한 개인의 힘을 모아 협동하는 가운데 큰 힘을 만들어 실질적인 개개인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양축가 모두가 춘천계우회와 같이 서로 협동하고 노력하는 양축을 한다면 전 양계인에게 있어서 불황이라는 말은 사라질 것을 확신한다.

〈南斗熙〉

여름철 계란보관은 종이난좌로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

야간 : 1342 (성남) 3-6239